



불국기행

정찬주 지음

불국교가 5곳 여행 경험담

‘천강에 비친 달’ 등 그동안 불교와 밀접한 글쓰기를 해온 작가 정찬주가 ‘불국기행’을 발간했다. 책에는 부탄, 네팔, 남인도, 스리랑카, 중국 오대산까지 다녀온 경험과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금언처럼 사전 지식이 있어야 여행지의 역사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그 같은 금언에 맞춰 다섯 나라로 떠날 여행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기초적인 지식과 감흥 위주로 글을 썼다. 특히 현지 취재와 ‘삼국사기’ ‘경상도지리지’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책을 집필함으로써 잘못 알려진 지식과 정보를 교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목할 점은 저자가 불교 유적을 한 지역의 맥락 안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우리 역사나 우리말과의 접점을 찾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문화의 과거를 살필 뿐 아니라 불교의 현재와 미래까지 헤아리고자 하는 의도다.

〈작가정신·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침대 없는 여자

서성란 지음

살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존재들

지난 1996년 실전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 서성란이 세 번째 소설집 ‘침대 없는 여자’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살아 있지만 살아 있다고 볼 수 없는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다.

모두 10개의 단편에서는 악성 치매와 자궁암, 뇌출혈 같은 육체적 고통부터 실어증, 이명증 같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병든 주제’들이 침묵 속에 발버둥친다. 세계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비명마저 알아들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작가는 어떻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지가 소설의 주제다.

그러나 상처 입은 인물들은 결코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근원을 응시하는 태도다. 작가는 정상의 범주로서 결코 이해받지 못할 무언의 언어를 기억하고 서사화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에 드러워진 갈망을 보여준다.

〈실전문학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불안들

레나타 살레츨 지음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불안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온갖 새로운(예컨대 핵전쟁과 관련한) 파국들에 대한 두려움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도 훨씬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중략) 오늘날의 문화에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은 불안의 주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원인은 사회적 역할, 정체성을 바꾸려는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행동의 지침이 되는 본보기의 부재와 관련해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더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이런 불확실성은 또한 사람들이 근본주의적 종교에 의지하고 사회적 제약들을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며 이론 인해 새로운 유

형의 전체주의가 발생하게 된다.”(본문 중에서)

현대인들은 왜 점점 우울하고 불안할까?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한다. 그럴 만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갖 사건, 사고가 넘쳐난다. 지진,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 재해는 말할 것 없고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외부의 직접적인 사고뿐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불안 증세에 휘말린다는 데 있다.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개발서와 힐링 산업의 번성과 무관치 않다.

대체로 자기개발서가 제시하는 불안 해소 방안은 표피적이다. 일대면 이런 것이다. “사려 깊게 처신하는 법을 배우라”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등과 같은 요법은 불안을 진정시킨다는 것이다.

불안을 실존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한 책이 나왔다.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레나타 살레츨이 쓴 ‘불안들’은 현

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불안을 탐색한다. 저자는 런던 대학교 버크벡 칼리지 교수이자 라캉을 토대로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날카롭게 파헤친 이론가이기도 하다.

그녀는 불안을 통해 후기 산업사회의 주체에게 발



발하는 변화를 추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불안은 일반적으로 대상 상실에서 기인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다. 즉 위협하다고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다.

저자는 모두 다섯 가지 테마를 통해 불안의 논리를 탐구한다. 각각의 주제는 전쟁, 노동, 사랑, 모성, 아버지의 권위로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저자는 “불안은 권위가 부재하기 때문인가, 너무 많기 때문인가?” “미디어는 불안을 보도하는가, 만들어 내는가?” “약은 불안의 치료제인가? 원인이냐?”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불안의 실체에 다가간다.

사실 풍요의 시대에 들어선 21세기에 이르러 불안의 모습은 달라졌다. 그러나 그 원인은 여전히 주체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스스로가 생각하는 인식 사이에서 조래된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쉽지 않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장애이며, 사회와의 기대와 관련해 겪는 특정한 동요는 바로 불안인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상태를 갖게 한다. 총격 완화의 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는 ‘불안의 변증법’과도 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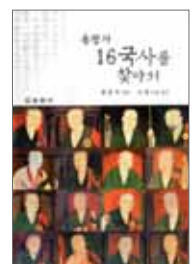
그러므로 불안을 없앴다고 해서 강제로 해소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여러 요인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가 변할수록 불안은 여전히 개인의 고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시대가 역설은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불안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동시에 더욱더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불안을 예방한다고 하는 기법들조차 흔히 그만큼 부작용이 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방식은 늘 대단히 개인적이지만 불안에 시달리는 인구를 만들어 내는 열정은 슬프게도 보편적이다.”

〈후마니타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지눌·혜심 … 한국불교 초석 세운 종장들의 삶과 사상



송광사 16국사를 찾아서

한송주 지음

광주일보 전직 월간부 기자였던 한송주 씨가 송광사 16국사를 조명한 ‘송광사 16국사를 찾아서’를 펴냈다.

그동안 ‘그리운 사람은 남행을 꿈꾼다’ 등을 통해 남도의 문화와 열, 역사와 풍물을 맛깔스러운 문체로 그려왔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송광사 16명 국사의 생애를 특유의 감각적인 문체로 아우른다.

책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에 송광

사 사보에 연재된 내용을 토대로 엮었다.

알려진 대로 조계총림 송광사는 12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가람으로 삼보(三寶) 사찰 중 승보(僧寶) 종찰로 꼽힌다. 불보 통도사, 범보 해인사와 더불어 승보는 승려들이 많이 났다는 뜻이다.

보조국사 지눌로부터, 진각국사 혜심, 청진국사 몽어, 해각국사 묘구, 고봉국사 범장애에 이르는 16명의 국사는 한국 불교의 초석을 세운 종장들이다.

저자는 이들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는 것은 비단 한국불교의 과거를 고찰하는 데서 나아가 내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송광사 16국사에 대해서는 보조, 진각국사를 제외하면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

다고 강조한다.

그로 인해 여러 논란이 많았고 이들의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나 연구 또한 극히 미진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16 국사의 생애를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역사적 맥락과 작품, 행적 등을 토대로 그려낸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저자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개성적인 문장이다.

책을 발간한 목적은 명료하다. “늦게나마 16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적과 유물을 탐방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해 승보종찰의 연원을 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되려 한다.”

〈송광사·1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이방인 눈으로 본 서울 도심·골목길 풍경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

정수복 지음

사회학자 정수복이 서울의 도심과 골목길을 걷고 쓴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를 펴냈다.

서울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유학 후 귀국하고, 다시 파리로 떠나 10년을 살다가 2012년 돌아온 저자는 2015년 현재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적인’ 산책자이다.

파리에서의 오랜 ‘정신적 망명’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낯설

어진 서울에서 ‘이방인’으로서 다시 적응하기 위해 서울의 도심과 골목들을 걷기 시작했다. 이방인의 눈으로 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지겨웠던 서울의 풍경들이 그의 눈에는 놀랍고 생생하기만 했다. 화려한 거대도시, 그리고 그 도시 속 작고 고단한 서울 사람들. 책은 그 명암을 특유의 문학적이면서도 냉철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걸으며 부딪친 온갖 자잘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풍경들을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도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다”고 전한다.

〈문학동네·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 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전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한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